



The 40th Anniversary Bulletin of Korean Diabetes Association

40주년 기념신문

발행처 : 대한당뇨병학회 40주년 기념사업단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456 한국사회복지회관 르네상스타워빌딩 10층 1010호 우:121-706
TEL 02) 714-1968 / FAX 02) 714-9084 발행인 : 최동섭 편집인 : 유형준

2호 2008년 4월
www.diabetes.or.kr



40주년 기념인터뷰 ② 11~12대 회장 이태희 선생

당뇨병교육, 세계학회 교류강화에 큰 힘 쏟는다

"40주년 기념 원로교수 인터뷰"는 학회 역사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오신 원로회원의 고견을 듣는 자리로, 그 두 번째 인물은 1987년~1991년 제11대, 12대 회장직을 역임한 이태희 선생이다.

이태희 선생은 전남의대를 퇴임한 후 현재 광주의원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인터뷰는 3월 28일(금) 오후 6시 신라호텔에서 열렸으며, 진행은 유형준 40주년 기념사업단 실무추진위원장이 맡았다. <편집자>

遠觀積善德. 원관적선덕, '멀리 바라보며 덕과 선을 쌓는다'는 말이다. 인터뷰가 끝난 뒤 부탁한 40주년 기념 휘호에 이태희 선생은 이런 명문장을 남겼다. 휘호 뒤 그는 "환자를 진료하는 것도 연구를 하는 것도 모두 덕과 선을 쌓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고 뜻을 풀어 해주었다. 평생 당뇨병 연구와 환자들을 위해 덕과 선을 쌓아온 그의 이야기를 이제 들어보자.

<2면으로 이어짐>

40주년 신문은 학회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Contents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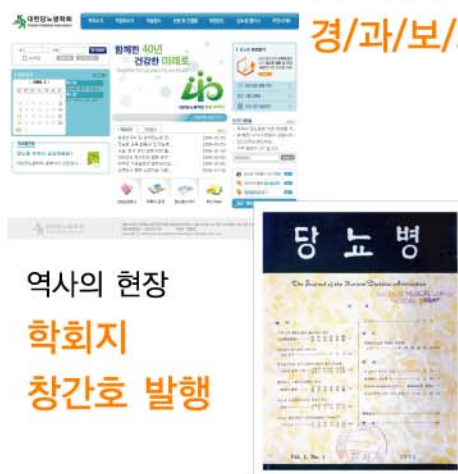
02

11~12대 회장
이태희 선생
인터뷰



03

40주년 기념사업단
경과/보고



역사의 현장
학회지
창간호 발행

04

자료수집
현황



40주년
기념우표
발행

당뇨병교육, 세계학회 교류강화에 큰 힘 쏟다

〈1면에서 이어짐〉

이태희 (이하 이) 엇그제 같은데 벌써 40년이 되었군요. 참으로 감개 무량합니다. 규모나 연구분야나 다방면에서 큰 발전을 이루어 다른 학회의 모범으로 우뚝 서 흐뭇합니다.

유형준 (이하 유) 선생님께서 회장직을 맡으셨을 때 이야기부터 시작했으면 합니다. 그 당시를 떠올리면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어떤 것일까요.



이 : 당뇨병하면 무엇보다 교육이 중요한데 식사, 영양관리에 있어 식품교환 단위가 고르지 못해 환자들이 많이 헛갈려 했어요. 그런 때에 식품영양위원회를 만들어 이 홍규 선생님 이하 많은 선생님들이 고생을 해주셨죠. 대한영양사회, 한국영양학회 등과 10여 차례 회의 끝에 기본적인 식품교환단위가 제대로 확립되어 오랜 숙원이었던 우리나라 고유의 식요소법 지침서인 「당뇨병의 식품교환지침」이 1988년 5월 30일 탄생했어요.

숙원 사업 「당뇨병의 식품교환지침」 발행

유 : 선생님의 그런 노력 덕분에 당뇨병교육이 이제 당뇨병 분야에서 일반명사가 될 정도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1990년에는 제1회 당뇨병교육자 세미나가 있었는데요. 깊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대목입니다.

이 : 가까운 일본학회에 자주 참여할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 가보면 의사를 비롯해 다양한 직종의 진료팀들이 모여 진료 시 어려웠던 점을 토론했던 모습이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우리도 해보자 했죠.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당뇨병 교육자 세미나를 처음 시작했던 게 기억납니다.

유 : 선생님께서 회장직을 맡으시는 동안 20년사를 편찬하셨는데요. 40주년을 맞은 지금 감회가 어떠신지요.

이 : 1989년 7월 1일 광주에서 전임 회장님들을 비롯한 임원진들이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때 20년사를 발간하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이 나왔지요. 가장 어려웠던 점은 자료가 너무나 빈약했던 것입니다.

유 : 40년사를 준비하면서 선생님께서 엮어 만드신 20년사가 보배 같은 자료라는 걸 새삼 느낍니다. 이제 국제학회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면 합니다.

최초 단체참가한 13차 IDF, 잊을 수 없는 기억

이 : 1972년에 IDF(세계당뇨병학회)에 가입하고 다음해 김웅진 선생님 혼자서 처음 IDF에 다녀오신 후 80년대 후반까지도 국제학회 참여도가 굉장히 낮은 수준이었어요. 그러다 제가 회장을 맡고 있었던 때인 1988년, 시드니에서 열렸던 제13회 IDF에 35명, 가족까지 하면 훨씬 더 많은 수가 처음으로 단체 참가하였어요. 연제도 많이 발표하고 학회가 처음으로 해외에서 모임을 가졌던 기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유 : 선생님께서는 IDF 외에도 한일당뇨병학회, 한불당뇨병학회 등에 어느 분보다 앞장서 일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 1980년 나고야에서 있었던 일본당뇨병학회에 김웅진, 윤준식 선생님과 함께 참석했고 제가 Vacor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그때 마침 나고야약대 장길남 선생님의 주선으로 이사회에 참여하게 되었고 거기서 한일당뇨병학회 모임을 갖기로 합의했지요. 다음해 서울에서 1차 한일당뇨병학회가 역사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한불당뇨병학회는 1986년 로마에서 열린 EASD(유럽당뇨병학회) 학술대회에 김웅진 선생님, 저, 허갑범 선생님 셋이서 참가했을 때 프랑스의 Lefevre 선생님과 합의한 것인데 두번 하다 그쳐 굉장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한국 소아당뇨캠프 창시자

유 : 학회는 사회 공헌에 힘을 쏟을 임무가 있는데, 선생님은 당뇨캠프를 가장 먼저 시작하시는 등 이 분야에서도 탁월한 업적을 쌓으셨습니다.

이 : 소아당뇨캠프는 1929년 미국의 Henry John이 처음 시작했어요. 1979년에는 세계 20여 개국으로 확대돼 큰 성과를 거두었죠. 국내에서는 제가 1981년 최초로 시작했어요. 어려움이 많았지요. 저혈당에 빠진 어린이를 잃어버릴 뻔한 일도 있었구요. 어떠한 보장장치도 없이 어린이 당뇨를 위해 애를 쓴 거죠.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제도적인 문제를 더 학회차원에서 신경 써주었으면 좋겠어요.

유 : 선생님께서는 RH 787, Vacor 당뇨에 대해서 세계적인 업적을 많이 내셨는데요. 지금껏 당뇨병학 한길로만 걸어올 수 있었던 비결이 있으시다면 후학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 : 허허, 뭐 비결은 딱히 없구요. 1968년 우리 학회가 창립하던 해 교직발령을 받았어요. 그 무렵은 서울대병원의 1년 당뇨병 입원환자가 8명 밖에 안 될 때예요. 당뇨병의 역학조사도 하고 그 결과를 김웅진 선생님과 같이 일본 가서도 발표하고 그랬죠. 그러면서 환자도 점점 늘어나고 더 매진하게 되었죠. 그러다보니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 아, 하나 빠진 게 있군요. 앞에서 13차 IDF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때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우리 학회에서 발행하는 당뇨병학 교과서를 하나 만들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나왔어요. 그게 태동이 되어 50여 명 집필진을 리스트업하고 부족한 예산을 맞추고 했지요. 출판은 후임이신 허갑범 선생님 때 했습니다.

유 :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분망하신데도 학회를 위해 시간을 허락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뇨병학 교과서를 떠올릴 때마다 사랑스럽다는 이태희 선생은 인터뷰 내내 '흐뭇하다', '자랑스럽다', '기쁘다'는 표현을 자주 썼다. 그만큼 그의 당뇨병학회에 대한 사랑이 남다른 것을 알 수 있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거의 지면에 담을 수 없을 만큼 그가 당뇨병학회에 남긴 업적이 많았다.

이태희 11~12대 회장의
대한당뇨병학회 40주년 기념 휘호



40주년 기념사업단 경과보고

기념사업단 회의

40주년 기념사업단은 3월 11일(화) 5차 회의를, 4월 8일(화) 6차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서는 40년사 편찬 조직도와 발간일정, 집필 업무 분담을 중심으로 기념우표, 기념 심포지엄, 기념 좌담회 등의 기념사업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한편, 3월 24일(월)에는 40년사 편찬 출판업체인 다니기획과 상견례를 겸한 '40년사 집필계획 수립' 회의가 있었다.

40주년 기념 원로회원 인터뷰

3월 3일(월) 김응진 선생님 인터뷰를 시작으로 3월 19일(수) 김영건 선생님, 3월 28일(금) 이태희, 허갑범 선생님, 4월 11일(금) 최영길 선생님, 4월 16일(수) 신순현 선생님, 4월 18일(금) 이흥규 선생님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4월 30일(수) 민현기 선생님의 인터뷰로 기념인터뷰가 마감된다. 인터뷰는 기념신문에 순차적으로 게재될 계획이다.

40년사 편찬 진행상황

40년사의 통사(通史) 부분은 기념사업단 유형준, 고경수, 고승현, 조영민, 강준구, 이창범 위원들이 분담하여 집필하기로 하였으며 1차 마감은 4월 30일(수)이다. 위원회와 지회 부분 원고는 각 위원회, 지회가 맡아서 작성하기로 하였으며 마감은 4월 30일(수)에서 5월 15일(목)로 연장하였다. 한편, 기념사업단은 19대 김덕희 회장부터 3대 손호영 이사장단까지의 역대 임원진에게 40년사에 실릴 회고담을 청탁했다.

기념우표 발행

기념사업단은 40주년 기념우표를 4월말 발행, 전 회원에게 1부씩 발송할 계획이다. 회원에게는 자발적 기부금을 받게 되며 그 기부금은 당뇨병환자를 위해 쓰일 예정이다. 기념우표는 춘계학술대회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

홈페이지 메인화면 수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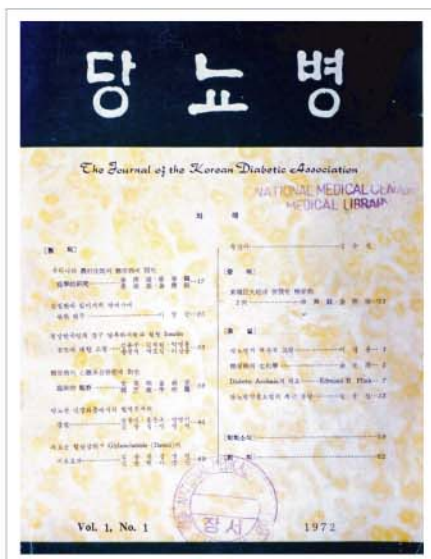
당뇨병학회 홈페이지 메인 화면을 3월 31일(월) 40주년을 기념하는 이미지로 바꾸었다.



<대한당뇨병학회 홈페이지 메인화면>

역사의 현장 - 학회지 「당뇨병」 창간 (1972년 3월 1일)

당뇨병학 연구결과 담는 그릇을 빛다



<당뇨병 창간호>

1968년 학회 창립 이전부터 끊임없이 이루어지던 당뇨병학 연구 결과들을 담아낼 학술지의 필요성은 당뇨병학회의 창립 직후 더욱 증가하였다. 드디어 1972년 3월 1일 학회지 「당뇨병」이 초대 편집인이었던 학술부장 고평욱 등의 노고로 광문인쇄사에서 인쇄, 발행되었다. 발행 당시의 감격을 초대 발행인이었던 초대 학회장 김응진은 「당뇨병」 창간사에 이렇게 적고 있다.

"몹시도 바라던 당뇨병학회지가 창간됨을 진심으로 경하하여 마지않습니다. 비록 뒤늦은 감이 적지 않으나 당뇨병학회가 발족되고 또 곧 이어 이렇게 학회지까지 발간하게 되어 연래의 소원을 풀은 듯 기쁘기 한량없습니다. (중략) 이제 우리는 우리 나름의 연구업적을 발표할 수 있는 잡지를 갖게 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세계 당뇨병학과 어깨를 겨룰 수 있도록 값어치 있는 연구업적을 많이 내고 알찬 논문을 편집하게 실어서 명실 다 함께 권위 있는 잡지로 키워가야 하겠습니다. 여기에 탄생한 학회지가 잘 자라서 장래에 보람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는

오로지 회원 여러분의 협조와 분발과 노력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끝으로 본지 창간에 노심하신 간부 제위에게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창간호 「당뇨병」은 책장의 소도를 열은 노란색으로 표현한 배경 그림에 의료를 나타내는 경건함, 진실함을 나타내는 무게와 온화함을 함께 느낄 수 있게끔 녹색의 '당뇨병' 세 글자를 표지의 상부에 넣었다. 창간호 「당뇨병」은 4편의 종설(당뇨병의 역사적 고찰 등), 6편의 원저(우리나라 농촌주민의 당뇨병에 관한 역학적 연구 등), 증례 1편(말갈 거대증에 병발한 당뇨병 2례)과 함께 학회 소식, 회칙, 투고규정 등을 60쪽에 담고 있다.

이후 학회지는 1983년까지는 2년에 1권씩 발간되었으나, 그 후 1985년부터는 1년에 2호가 발간되었고, 1992년부터는 1년에 4호, 1999년부터는 1년에 6호를 발간하여 2008년 4월 현재 32권 2호에 이르고 있다. 또한 지난 2007년에는 학술진흥재단에 공식 인정 학술잡지로 등재되었다. 당뇨병학회지는 세 차례의 표지 변화를 거치며 현재까지 총 853 편의 원저와 70편의 증례, 80편의 종설 및 25편의 연구동향, 56편의 의학논평, 심포지움 61편 등 총 1145편을 게재하여, 한국에서의 당뇨병에 대한 지견을 국내외에 전파하는 데에 중요한 공헌을 하였다. 학회지는 현재 2500부를 인쇄하여 모든 당뇨병학회의 회원은 물론 전국 각 의과대학 도서관과 종합병원 그리고 일부 외국 당뇨병학회에도 발송되고 있다.

<정리/글 : 유형준, 고승현>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자료가 40년사의 알찬 밑거름이 됩니다



〈수집된 자료들〉

40년사 발간을 위해 여러분께서 자료를 보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40년사를 발간하기에는 아직 부족합니다. 앨범 속에서, 책장 한 구석에서 잠자고 있는 학회 관련 자료들을 기념사업단으로 보내주세요. 그 자료들이 모이고 모여 멋진 40년사가 발간될 것입니다.

**** 40년사 자료수집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우편 자료

자료 제공자	제공 내용	제공 날짜	자료수집 지원팀
신순현 (중앙대병원)	책자 22권, 사진 4점, 감사장 1점, 신문스크랩 자료	2월 19일	
최동섭 (고려대병원)	사진 9점	2월 19일	
김광원 (삼성서울병원)	대형앨범 2권(사진 500점 이상), IDF 관련문서 5장, 사진액자 2점	3월 26일	삼성서울병원 정혜승, 허규연
이태희 (광주의원)	소책자 1권, 복사자료	3월 28일	
정준희 (연세원주기독병원)	소책자 11권, 팸플렛 22점, 식품교환표(카드) 5장, 당뇨목걸이	4월 2일	
이현철 (세브란스병원)	사진 14점	4월 10일	세브란스병원 강은석, 전성환
이상중 (강북삼성병원)	신문·잡지 기고글·책표지 복사자료 18점, 이상중 저 책 3권	4월 14일	강북삼성병원 이원영
조용욱 (분당차병원)	사진 2점	4월 14일	

온라인 자료

자료 제공자	제공 내용	제공 날짜	자료수집 지원팀
한국 오츠카제약	사진 27점	3월 5일	
사노피아벤티스	사진 31점, PPT 자료 15점, 워드자료 3점, 엑셀자료 1점	3월 31일	
백흥선 (전북대병원)	PPT 자료 "전북대병원 당뇨병학회 40년사"	4월 7일	전북대병원 박태선, 박영민

40주년 기념우표가 나왔습니다

40주년 기념사업단은 슬로건과 엠블렘을 디자인 컨셉으로 하여 기념우표를 발행했습니다. 기념사업단은 기념우표를 전 회원에게 우편 발송할 계획이며 회원에게 자발적 도네이션을 받는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기념우표는 춘계학술대회 학회 부스에서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창립 40주년 기념우표〉

자료대상

개인수첩이나 일기장, 사진, 개인보관서류, 각종 회의자료, 각종 교육자료, 책, 학회 세미나 워크샵 자료, 테이프, 신문기사 스크랩, 상장 및 상패, 각종 행사자료, 서류양식, 기념품 등.

접수기간

2008년 5월 15일

보내주시는 방법

춘계학술대회 학회부스로 직접 전해주시거나, 학회 사무실로 우편 발송해주세요. 온라인으로 사진을 보내실 때는 48비트 300dpi로 스캔받아 보내주시십시오.

보내주시는 곳

주소 :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456번지 한국사회복지회관 르네상스 빌딩 1010호 대한당뇨병학회 40주년 기념사업단 우:121-706
전화 : 02-714-1968, 팩스 : 02-714-9084
E-mail : kda40th@diabetes.or.kr

